

## [큐티 클리닉 5]

### QT를 여는 효과적인 준비기도(2)

이상규 목사 / 2001 / 페이지수: 2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날 하루 동안 이루어야 할 자신의 계획, 염려, 목표, 소원 등을 생각한다. 그것이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나의 원'을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던 삶의 방식에 결정적인 변화가 생긴다. 자기 속에 성령이 내주 하셔서 새로운 소원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많은 경우 내적 갈등으로 경험된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현상의 뿌리를 정확히 보여준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갈 5:17)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갈 5:16)

#### 나의 원대로 마음시키고...

바로 이것이 기도로 표현된 것이 “나의 원대로 마음시키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이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이 아침에 눈뜨자마자 이렇게 단호하고도 탁월한 기도와 선택을 할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의 기도는 아무런 갈등도 없이 지극히 단순하고 명쾌한 ‘아버지의 원’으로만 가득 찼을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눅 9:23)라고 하신 이 말은 자신의 갈등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다시 겿세마네 기도를 주목해보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도 부인해야 할 ‘나의 원’이 있었음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것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전 존재의 깊이에서 나오는 저항이었음을 말이다.

주님은 겿세마네로 가시면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속 고뇌를 토로하셨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마 26:36,38)

그리고 조금 나아가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실 때 그 첫마디는 놀랍게도 자신의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것이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마 26:39)

물론 곧이어 주님은 앞서 구했던 자신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원대로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으나 이 “나의 원”을 참으로 부인하고 “아버지의 원”을 자신의 전 존재의 깊이까지 받아들이는 무섭고도 처절한 씨름의 기도는 이후 3번이나 반복되었고 이 과정에서 주님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 방울같이 되었던’(눅22:44) 것이다.

## 씨름 같은 기도 계속하라

여기서 우리 삶에 받아들일 큐티를 위한 준비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그리스도인인 우리 속에는 '나의 원'과 '하나님의 원'이 갈등상태임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내가 참으로 원하는 그 '나의 원'을 깨닫고 표현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을 숨기거나 억압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기도로 표현하셨다.

셋째, '나의 원'을 인식하고 기도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도 있고 그것이 더 지혜롭고 합당함을 인정하고 그 뜻에 마음을 열고 내 삶에 수용되도록 기도하라.

넷째, '나의 원'을 상대화시키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원'을 온전히 받아들일 상태가 될 때까지 이 씨름과 같은 기도를 반복하라.

**\* 출처 : 온누리신문 (큐티와 일대일)**